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⑳

이처럼 십지의 법문을 청하는 과정을 거쳐서 금강장보살의 법문이 시작된다. 이 중요한 법문도 여래가 아닌 보살이 설법한다. 부처님의 위신력(威神力)과 여래의 가피를 입고서 말이다. 그 첫 말씀에,

"불자여, 보살이 처음 이런 마음을 내고는, 곧 범부의 처지를 뛰어넘어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여래의 집에 태어나나니, 그 가문의 허물을 말할 이가 없으며, 세간의 모든 갈래를 떠나서 출세간의 도에 들어가며, 보살의 법을 얻고 보살의 자리에 머물며, 삼(三)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 여래의 종성에서 결정코 위가 없는 보리를 얻으리니."

예로부터 〈화엄경〉의 중심은 십지법문(十地法門)에 있다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경문에서 보듯이 십지수행은 까다롭고, 단계적인 수행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려대의 큰스님이신 보조국사(1158~1210)는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을 주장한 것이 아닐까? 원돈성불론이란 선교겸수(禪敎兼修)의 수행법으로 〈화엄경〉의 사상을 바탕하여 완성한 성불의 길이니 곧 조계종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인 것이다.

여기서 십지의 이름을 설명해 보자. 〈성유식론(成唯識論)〉 권9에서 말하였다.

"십지는 다음과 같으니, 제1은 극희지(極喜地)다. 처음으로 성인의 성품을 얻고 두 가지 공을 모두 증득해서 능히 자신과 남을 이익되게 하여 큰 기쁨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제2는 이구지(離垢地)다. 청정한 계율을 구족하여, 미세한 훼범을 일으키는 번뇌의 오염을 멀리 여의기 때문이다."

제2, 이구지(離垢地)에서는 이런 내용의 법문이 설해진다.

"불자여, 이 큰 원은 열 가지 끝나는 구절로 성취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말하자면 중생계가 끝나고, 세계가 끝나고, 허공계가 끝나고, 법계가 끝나고, 열반계가 끝나고, 부처님이 출현하는 계(界)가 끝나고, 여래의 지혜의 계가 끝나고, 마음으로 반연하는 계가 끝나고, 부처님 지혜로 들어갈 경계의 계가 끝나고, 세간의 진전(轉), 법의 진전, 지혜의 진전하는 계가 끝나는 것이니라. 만일 중생계가 끝나면 나의 원도 끝나며, 만일 세계와 내지 세간의 진전, 법의 진전, 지혜의 진전하는 계(界)가 끝나면 나의 원도 끝나려니와, 중생계가 끝날 수 없으며, 내지 세간의 진전, 법의 진전, 지혜의 진전하는 계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큰 원의 선근도 끝날 수 없느니라."

이른바 '10가지로 발원하는 십진구(十願成就의 十盡句)'이다. 마치 제40,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의 내용을 보는 듯하다.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경이 다하겠지만 허공계가 다하지 않으므로 나의 예경도 끝나지 않으며…"라 하였으니 서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이어서 게송을 살펴보자.

"질직하고 부드럽고 참을성 있고 조복한 맘 고요한 맘 순일한 마음 생사를 뛰어넘는 광대한 열 가지 마음으로 이(二)지에 들게 된다 / 여기에선 불자가 전륜왕 되어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十善) 행하며 여러 가지 선근을 모두 닦아서 십력(十力)을 이루어서 세상 구제하도다."

위에서 보듯이 십지수행은 초지(初地)인 환희지(歡喜地)에서는 보시행(布施行)을 가장 우선하고, 다음의 제2 이구지(離垢地)에선 청정한 계행을, 제3 발광지(發光地)에서는 인욕 수행을, 제4 염혜지(焰慧地)에서는 정진바라밀을, 제5 난승지(難勝地)에서는 선정바라밀을, 제6 현전지(現前地)에서는 반야의 지혜가 현전하는 등의 6바라밀을, 나아가 10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으로 기본을 삼고 있다.

10바라밀 실천 보리 이루리

십지법문은 성불로 가는 근본 가르침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그림 · 문병성

본체와 현상 둘로 보지 말자

불교와 과학 〈39〉

이분법

자연-인간, 정신-물질 따로 보면 인간소외 · 환경파괴 문제 불러

사이언스(science)라는 말을 번역한 과학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번역한 것이긴 하지만 참으로 잘된 번역이다. 원래 사이언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진리 추구라는 뜻이다.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분류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철학과니 사학과니 하는 과(科)나,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인 종강목 다음의 과(科)라는 말이나 다 분류라는 뜻을 품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것이 곧 과학인데, 진리를 찾는 그 방법이란 눈에 보이고 지각 가능한 자연계의 사물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으고 다른 것과는 다르게 나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과학자는 같은 것과 비슷한 것, 그리고 다른 것을 구분하는 정확한 눈을 가져야 했다.

어쨌든 과학은 지각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지각된 것끼리 모으고 나눈 다음에 그 이름을 붙여야 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지각되는 개별 사물과 달리 추상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추상적인 이름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서구의 과학과 철학은 그 이름이 개별 사물보다 앞서서 실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철학적 언급을 한 최초의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이었고, 그의 철학적 주장들을 묶어 실재론이라고 말한다. 그 이후 서구의 과학과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라고 말할 정도로 플라톤의 실재론은 서구사상사에서 기둥 구실을 해 왔다.

예를 들어보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대포가 날아가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개별 현상들을 포괄하는 법칙을 중력법칙이라고 한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현상 그 자체는 과학이 될 수 없지만, 그런 유사한 현상들을 묶어서 그들의 공통점을 뽑아내어 그것에다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중력법칙이며, 그 법칙은 과학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서구과학은 그런 법칙이 단순히 현상들을 설명하는 수학식이 아니라, 이 법칙세계에 실재하는 선험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미로의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 미로를 찾아내서는 것처럼, 법칙이 먼저 실재하기 때문에 그 법칙을 찾아 나서는 과학의 탐구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법칙의 세계만을 오로지 실재하는 세계로 보았고, 개별자들의 세계는 현상적일 뿐이며 실재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굳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과학은 감각대상의 탐구학이면서 동시에 가장 추상적인 형이상학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구 과학과 나란히, 철학은 2000여 년 이상이나 실재론 논쟁을 해 왔다. 실재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엄격히 분리하는 이원론의 철학적 구도가 자리잡았다. 진리의 위상을 실재계에만 부여하여, 현상은 실재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이원론의 구도는 객관과 주관, 나와 너, 법칙과 개체, 정신과 물질, 이성과 감성, 자연과 인간 나아가 하늘과 땅과 같이 모든 것을 엄격히 둘로 구획하는 이분법적 경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분법적 경계는 데카르트와 칸트에 와서 더 단단히 굳어져 서구 사유의 기본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인간과 바버리언(barbarian)이라는 인위적인 틀에 적용하여 그들의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고 먼 대륙으로부터 착취의 자본을 쌓아 왔다. 제국주의와 함께 서구 산업혁명은 서구인에게 물질적 풍요로움을 안겨 주었지만, 인간의 소외와 환경의 파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철학적 원인으로까지 인식되었다.

한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동양은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는 방어기제와 대안을 찾는 데 급급하였다. 중국의 경우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을 들고 나와 서구의 힘을 선별적으로 수용 ·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웅십력(熊十力, 1885~1968)이라는 불교학자는 서구사상의 이원론을 비판하고, 중국의 유식론을 반성하는 대응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때 웅십력은 전통의 유식론을 서구의 이분법적 구도와 비슷하게 간주하였다. 그 주장의 요점은 유식론이 본체와 현상을 구획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지니고 있어서 서구의 이분법적 사유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웅십력의 해석, 즉 본체를 진여의 세계로 보고 현상을 허망함으로 보는 이분법적 해석은 그 이후로도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 일본의 한편에서는 불교를 서구 시각적인 회의주의 철학으로 간주하는 버릇을 들게 되었다. 이런 잘못된 불교 이해는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 있다. 이는 자연계의 현상과 법칙이라는 과학에서의 이분법 체계를 불교에서 단절된 의식의 가환(假幻)과 연기의 일체 간의 관계에다 그대로 비교한 데서 온 오해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불교는 현실 세계와 쉽게 단절된 비전(秘傳)에 그칠 수 있으며, 자기방어적 종교에 갇힐 수도 있다. 불교는 이 세계가 단순히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chak sangji ac kr

다나브강 물줄기 막아 부처님 탄생지 수몰위기

지구촌 불교 / 印 룸비니에 댐 건설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유적이 수몰 위기에 처했다. AP통신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네팔 정부가 인도 정부에 룸비니 인접 지역에서 건설중인 댐 공사를 중단하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AP통신은 '부처님 탄생지 댐 공사로 위협(Buddha's Birthplace Threatened by Dam)'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자야 가치체다르(Bijaya Gachchedar) 네팔 수자원장관의 말을 인용, "인도 당국이 수개월 전 룸비니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을 흐르는 다나브강을 가로막는 라시얄 쿠르다 라우탄(Rassiyal Khurda Lautan) 댐 공사를 시작, 불교성지가 물에 잠길 위험이 높다"고 보도했다.

룸비니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남서쪽 270㎞ 지점에 위치한 불교 성지로, 2천6백여 년 전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다. 이에 주목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97년 12월 5일 이 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네팔 정부는 인도 정부의 댐 착공을 전후해 "국경 8㎞ 이내에서 댐 건설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항의하



◇수몰 위기에 처한 룸비니.

네팔 "국제법 위반 행위" 중단 요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훼손 우려"

왔다. 특히 고카르나 비스타(Gorkarna Bista) 의원은 '다나브강 댐 공사는 부처님의 탄생지를 물에 잠기게 하려는 음모이자 인도 영토 내에 가짜 룸비니 동산을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현재 건설중인 15m 높이의 라시얄 쿠르다 라우탄 댐은 다나브강을 막아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 공사에 앞서 지형 및 환경 영향 평가를 한 결과, 룸비니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대응하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발굴과 함께 개발이 시작된 이래 연못, 마야 사원, 평화의 대탑 등이 들어선 룸비니는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찾는 대표적인 불교성지다. 네팔 정부도 룸비니의 중요성을 인식, 93년부터 '룸비니 종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개발 구역을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기 그 특성에 맞게 개발하도록 되어있다. 우선 '신 룸비니 마을'이라 명명된 북부 지역은 병원, 호텔, 도서관, 박물관 등을 건립하게 되며, 156피트의 평화의 탑은 이미 들어섰다. 중부지역은 남부지역과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적인 성지가 들어서게 되며 남부지역은 아쇼카 석주와 마야 사원 주변을 중심으로 고대 사원의 조형물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설과 급수시설을 갖추게 된다.

유네스코는 "룸비니는 인류의 가장 성스러운 종교 유적의 하나"라며 인도 정부의 댐 건설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초기 불교의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는 룸비니를 보존하는 데 국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흑식식(2개월 50만원), 흑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illegible](2개월 150만원), 유황건정(2개월 50만원), 유황[illegible]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